

# 한전·中企·지자체, 에너지 신산업 주력 다짐

투자설명회·토론회 1천명 참여

한전, 올해 3조 8000억원 투자

전남도, 육성 10개년 계획 수립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전라남도 나주 본사 한빛홀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내 중소기업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투자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스마트계량기(AMI),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쌓기 위해 마련됐다.

조환의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전을 비롯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성과를 발판으로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해 동반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신산업 미래 모습과 기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에너지신산업 시장 규모가 약 12조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황우현 한전 에너지신사업단장은 ▲ 에너지신산업 추진 성과 ▲ 올해 3조 8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황우현 한전 에너지신사업단장은 주제발표에 나서 올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계획과 중소기업들의 참여절차를 안내했다.

우병기 광주광역시 부시장은 “에너지신



한전은 20일 오후 본사 한빛홀에서 국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투자설명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전 제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기중 전라남도 정부부시장은 “에너지신산업 중심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

시장은 “에너지밸리가 명실상부한 전력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남준현 전기산업진흥협회부회장, 박혜린 유니시스템 대표, 이태식 이엔테크놀로지 대표 등 전문가 8명

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조환의 한전 사장은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해 한전과 더불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전,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정 절반 넘었다

한국전력은 2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건설 중인 바라카(Barakah) 원전 3호기의 원자로가 19일(현지시간)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3호기는 본격적인 기계와 전기 분야 공사에 돌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UAE원전 모든 호기(1~4호기)의 종합공정률은 66% 수준이다.

UAE원전 1호기는 발전소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2, 3, 4호기도 최고의 품질 기준을 적용해 건설 중이라고 한전은 전했다.

한전은 2020년까지 UAE원전 1~4호기가 모두 완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9일 원자로 설치 행사에는 사이드 이드 알 가블리 아부다비 집행이사회 위원 겸 집행이사회 사무국장, 모하메드 알하마디 원자력공사(ENEC) 최고경영자

(CEO), 박강호 주UAE 한국대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원전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원전 건설 주계약자인 한전과 참여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임직원들도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다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aT, 유튜브로 농식품 유통 강의 들으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 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에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채널을 개설하고 농식품 유통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및 유통 교육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의 유튜브 채널 개설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교

육원의 강의를 접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교육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튜브에 교육원 강의 영상이 새로 게시될 때마다 기존 aT 페이스북에도 내용을 함께 홍보하여 교육 파급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이번 유튜브 채널 구축을 통해 식품과 유통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 및 사업 소개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누구에게나 제공함으로써 미래 농식품산업 인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든 웹 브라우저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G메일이나 구글 가입자는 채널구독을 통해 최신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만약 담아두고 싶은 강의 동영상에 있다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과 같은 본인의 SNS계정으로도 쉽게 스크랩해 둘 수 있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조해영 원장은 “교육원은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원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기 평가제 진단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차 방송통신기자제 적합성평가 분야 정책고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 지정시험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적합성평가 제도 현안 진단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제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제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전파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3만4000여건의 적

합성평가가 이뤄졌으며, IT·전자기기 분야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받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듣고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등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대선 원장은 “적합성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혁신도시 ‘새내기’ 산뜻한 출발

방송통신전파진흥원

33% 지역 인재 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KCA)은 지난 18일 빛가람혁신도시 본원에서 ‘2016년 제2차 공채시험 합격자 임용식(사진)’을 진행했다.

이번 제2차 공채 합격자는 미디어산업진흥·ICT기금운용관리·전파산업진흥·주파수관리·무선국검사 등 KCA 주요사업을 담당한다. 총 24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방식에 따라 선발했으

며, 최대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치열한 전형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정보통신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KCA는 이번에 임용된 신규직원 33%를 광주·전남지역의 청년 인재로 채용, 지역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명룡 원장은 “지역 청년 일자리 확보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지역경제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체 감사역량 강화

공직기강 전국 부서장 회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KCA)은 지난 20일 빛가람혁신도시 본원에서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전국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5일 개최한 산하 공공기관 감사(監事)회의의 결과 후속 조치로, 전국 본부장급 간부를 긴급 소집해 부정부패 사전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KCA는 공공기관 ‘자체감사 역량강화’와 ‘채용제도 개선’, ‘하절기 근무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내부 직원과 소통을 강화해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는 자정기능을 갖춰 나가기로 했으며, 자체 감사역량 강화로 부정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김명룡 원장은 “청렴한 윤리의식이 없이는 KCA가 ICT진흥의 핵심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